Eugene's FICC Update





Fixed Income 김지나 02)368-6149 i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 02)368-6138 i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 02)368-6177 dbwogur170@ eugenefn.com

Fixed Income (단위: %,bp, 틱)						
		2/25일	1D	1W	YTD	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596%	-1.4	-4.5	0.0	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797%	-2.8	-8.1	-5.8	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0.1	21.5	23.7	25.9	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76	6.0	17.0	11.0	
	10년 국채선물(LKTB)	118.82	28.0	81.0	190.0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095%	-8.0	-21.6	-14.5	
	미국채 10년물	4.297%	-10.4	-25.5	-28.9	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20.2	22.6	24.0	34.6	
	독일국채 10년물	2.458%	-1.7	-3,8	9.4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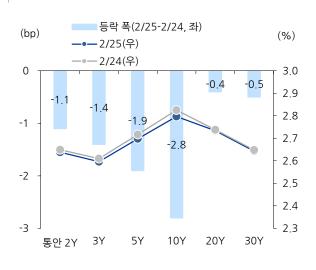
4.400%

-10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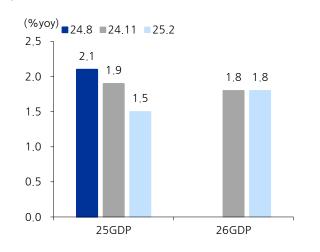
3.2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호주국채 10년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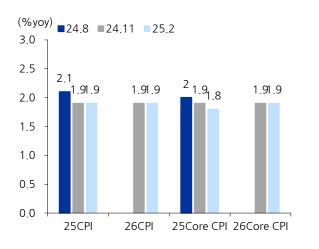
한국은행 금년 및 내년 성장률 전망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
- 2월 금통위, 만장일치로 25bp 인하. 6명 중 2명은 짙어 진 경기 부진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3개월 내 추가 인 하를 지지
- 한은, 올해 성장률 전망을 1.5%로 하향조정했고, 경제 전망시나리오 통해 1.4%까지 열어둠. 이는 관세 정책 일후 반영, 추경은 미반영된 수치임
- 총재, 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상단 혹은 이를 소폭 옷 도는 수준임을 언급. 향후 인하 횟수에 대한 시장과 한 은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발언

한국은행 금년 및 내년 물가 전망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
- 트럼프, 캐나다 멕시코 25% 관세 유예기간 종료 후 예정대로 부과하겠다는 입장 밝힌 가운데 미 정부는 대 중국 반도체 통제 강화 구상한다는 외신 보도로 안전선 호심리 확산
- 2월 CB 소비자신뢰지수, 21년 8월 이후 월간 낙폭 기준 최대 규모 기록, 시장 예상치를 대폭 하회
- 미국채 5년물 입찰, 양호한 수요 속 무난히 마무리된 점도 금리 하락을 지지
- 리치먼드 연은 총재, 인플레이션이 2% 목표로 회복한 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절히 제약적이어야함을 언급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

FX & Commodity (단위: %, \$)						
		2/25일	1D	1W	YTD	
	원/달러	1,430.40	0.2%	-0.9%	-2.9%	
	달러지수	106.26	-0.4%	-0.7%	-2.0%	
	달러/유로	1.052	0.5%	0.7%	1.6%	
환율	위안/달러(역외)	7.25	-0.0%	-0.3%	-1.1%	
	엔/달러	148.95	-0.5%	-2.0%	-5.2%	
	달러/파운드	1,267	0.4%	0.5%	1.3%	
	헤알/달러	5.75	-0.4%	1.2%	-7.0%	
	WTI 근월물(\$)	68.93	-2.5%	-4.1%	-3.9%	
상품	금 현물(\$)	2,912.80	-1.3%	-0.7%	11.0%	
	구리 3개월물(\$)	9,395.00	-1.0%	-0.8%	7.2%	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3.00원 상승한 1,430.4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34.40원 마감.
- 간밤 달러는 독일 총선 결과에 따른 일부 회의적인 시각 속에 되돌림. 달러-원은 상승 출발 후 금통위 대기.
- 한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.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동결을 전망했으나, 한은 총재의 기자회 견은 우려와 달리 그리 매파적이지 않았음. 기자회견 시작 이후 달러-원은 저점에서 상승폭을 약간 키운 채 마감.

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면서 급락.
- •최근 미국 경기 지표가 연이어 부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일 발표된 CB 소비자신뢰지수도 98.3으로 전월 105.3에서 급락. 연방정부의 대량 해고 정책이나 관세 불확실성등이 소비 심리를 제약. 핵심 지표인 일자리 풍부 - 부족 격차도 17.1로 전월비 하락했으나, 심각한 둔화로 보기는 어려움.
-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%로 돌아 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당히 제약적인 정책을 이어 가야 한다고 발언.
- 독일은 메르츠 기민당 대표와 숄츠 총리가 부채 브레이 크를 우회할 수 있는 2천억 유로의 특별 방위비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등장.